

파니움 - 숫자 열아홉

위대한 자들: 안티오쿠스,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최후의 대통령

Jeff Pippenger

2026-03-01

다니엘서 11장 10절부터 16절을 옳게 분별하는 열쇠는 1996년, 곧 삼십여 년 전에 'The Time of the End' 잡지가 출간될 때 사용되었던 기본적인 예언적 적용들에 있다. 삼십 년 후, 주께서는 또 다른 예언적 기별이 1831년에 밀러파의 기별이 정식화되었듯이 정식화되어야 함을 계시하셨다. 이 삼십 년의 오메가 역사 속에서 정식화될 그 기별은, 요사이아 리치가 대표하는 이슬람에 관한 이전 기별의 교정으로, 또한 사무엘 스노가 대표하는 '달힌 문'—곧 열 처녀의 비유의 상징—에 대한 교정된 기별로 제시된다. 그리스도께서 심판 사역을 마치심에 따라 은혜의 시한의 문들이 점진적으로 닫혀 간다는 경고를 동반한 이슬람에 관한 기별이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은 이중적이며 내적 선과 외적 선을 지니는데, 이는 예언이 봉함이 풀릴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삼단계 시험 과정의 첫 두 단계를 각각 대표하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같이 드러났다.

The Time of the End 잡지는 1989년 종말의 때에 봉인이 풀린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이 제시하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기본 개요를 담고 있다. 그 잡지는 30년 동안 공개 기록으로 존재해 왔으나, 그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가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가톨릭의 영향 아래 있는 교회들과 공산주의 사이의 종교적 투쟁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다. 1989년의 그 종교적 전투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윗시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낸 반역으로 표상되는 푸틴의 종교적 몰락의 맥락을 설명한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성전이 아니라 윗시야의 성전이였다. 푸틴과 젤렌스키는 서로 다른 두 방식으로 동일한 성전을 모독한다. 한 사람은 이집트인으로서,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1989년에 남방의 왕과 맞서 싸우고 있던 교회는 가톨릭교회였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프랑스의 무신론이 1798년에 북방의 왕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으니,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가톨릭교회를 향해 장기간에 걸쳐 가해진 무신론의 박해에 대하여 교황권이 보복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관한 이 분명한 증언이 1989년의 역사에 관하여 세속 역사가들을 인용한 1996년의 한 간행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제 주께서 사십절의 감추어진 역사의 봉인을 떼어 드러내고 계시므로, 그분은 라피아 전투와 그 여파에 대한 예언적·역사적 맥락을 제공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정교회 사이의 투쟁을 가리키셨고, 이미 삼십 년 전에 발행된 'The Time of the End' 잡지에 필요한 통찰을 포함해 두셨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체제의 점진적 몰락과 상응한다. 예언적 남왕국이 그 수도를 러시아로 옮겼을 때, 1917년에 두 차례의 중대한 혁명이 일어났다. 첫째는 이른바 러시아 혁명으로, 이때 차르가 폐위되었고, 이어 같은 해에 볼셰비키 혁명이 뒤따라 1917년부터 1922년에 이르는 내전으로 이어졌다.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수립되었다.

남방의 영적 왕으로서의 러시아의 시작은 내전으로 이어지고, 다음으로 국가 연맹의 형성으로 나아간 두 단계의 혁명으로 표상되었다. 소련의 붕괴 또한 두 단계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철거로 시작하여 1991년 12월 31일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다. 러시아의 마지막 통치자, 곧 남방의 왕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초의 러시아 통치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 예표되었다.

‘블라디미르’는 ‘위대한 지도자’를, ‘푸틴’은 ‘길’을 의미한다. ‘레닌’은 ‘큰 강’을 의미하지만, 블라디미르 레닌은 자신의 본명, 곧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야노프를 숨기기 위해 ‘레닌’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일리치’는 ‘엘리야의 아들’을, ‘울리야노프’는 ‘엘리야의 젊은 아들’을 의미한다.

기원전 217년 라피아 전투로 표상되는 역사적 노정에서의 위대한 러시아 지도자는 러시아의 첫 지도자에 의해 예표되었으니, 그는 블라디미르 레닌으로서 거대한 강의 위대한 지도자였으나 자신의 이름을 숨겼다. 이름은 성품의 상징이며, 블라디미르가 자신의 두 이름을 숨겼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을 지닌 엘리야로 대표되는 성품보다 정치 사상의 거대한 강을 선택한 성품을 나타낸다. 무신론의 근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무신론은 남방 왕의 주요한 특징이다. 레닌에게 주어진 둘째와 셋째 이름은 엘리야와 그의 아들을 강조한다. 그리고 남방 왕으로서의 러시아의 종말은 프톨레미 4세에 의해 표상된다. 그는 라피아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기원전 200년에 파니움 전투에서 안티오쿠스가 돌아왔을 때에는 프톨레미의 다섯 살 난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다. 레닌의 두 본래의 이름은 엘리야와 그의 아들을 지목하며, 프톨레미와 그의 아들과 상응한다. 엘리야와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직전의 말세에 주어지며, 라피아와 파니움의 전투도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5, 6.

웃시야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증언은 다니엘 11장 11절에서 서로 일치하며, 웃시야는 그의 반역과 나병 이후에도 11년을 더 살았다. 반면 프톨레마이오스는 도합 17년을 통치했는데, 이는 11절의 전투와 15절의 전투 사이의 연수와 같다. 기원전 457년에 시작된 250년의 예언은 그 두 전투의 중간인 기원전 207년에 끝났는데, 라피아 이후 10년, 파니움 이전 7년이였다.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치세는 기원전 221년에 시작되었고 그는 기원전 204년에 죽었으므로, 프톨레마이오스의 17년은 라피아에서 파니움까지의 17년과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다. 또한 그것들은 64년에 네로로부터 시작하여 313년에 끝나는 250년의 예언의 결론이 나타내는 17년과도 동일하지 않다. 313년부터 321년의 첫 주일법까지는 8년이며, 그로부터 9년 뒤인 330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왕국을 동서로 분할하였다.

매우 가까운 장래에 푸틴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패배시키며, 제12절로 대표되는 역사 속에서 프톨레미와 웃시야의 전철이 되풀이되기 시작할 것이다. 성경의 두 증인은 푸틴의 최종 위기를 교회와 국가의 위기로 위치시킨다. 그들의 반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났고, 이로써 예언적 참조점이 웃시야의 성전과 종교로 지목된다.

'녹색'을 뜻하는 젤렌스키는 유럽연합과 유엔의 세계주의 관료들의 꼭두각시이며, 그들의 세계주의 의제는 어머니 지구를 숭배하는 녹색 정치 운동에 의해 적확하게 표상된다. 젤렌스키가 배우였다는 사실은 합당하다. 이는 그가 분명히 다른 권력들의 대리인이고, 그의 이름이 '녹색'을 뜻한다는 사실이 인류 역사라는 체스판 위에서 그의 행보를 이끄는 정치철학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젤렌스키에게 체크메이트가 임박해 있다.

이 마지막 역사에서 웃시야와 프톨레미의 반역이 다시 한 번 재현될 것이나, 프톨레미(푸틴)는 파니움 전투 4년 전에 사망하였고, 남방 왕의 마지막 통치자는 일련의 부패하고 무능한 섭정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다섯 살의 아이로 상징된다.

프톨레마이오스 5세는 기원전 204년에 즉위할 당시 약 5~6세에 불과했으며(이는 부왕의 불가사의한 사망 이후였다), 그의 치세 동안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은 연속적인 무능 또는 부패한 섭정정치로 마비되었다. 최초의 섭정 기간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죽음이 은폐되고 그의 모후 아르시노에 3세가 살해된 뒤인 기원전 204~202년에 걸쳐 있었다. 궁정의 총애를 받던 소시비오스(프톨레마이오스 4세 치하의 오랜 대신)와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애첩 아가토클레아의 형제 아가토클레스가 스스로를 섭정으로 선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제시하고, 어린 국왕을 아가토클레아와 그 일가의 후견 하에 두었으며, 잠재적 경쟁자들을 숙청하였다. 초기 행정의 상당 부분은 소시비오스가 관장하였다.

기원전 202년경, 아가토클레스가 실권을 쥔 섭정으로 부상하면서 변동이 일어났으나, 그는 방탕과 실정으로 널리 미움을 샀다. 알렉산드리아에서의 민중 봉기는 그가 폭도들에 의해 잔혹한 사적 처형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소년 왕은 이에 명목상 승인을 표했다. 그 뒤 섭정직은 펠루시움의 총독 트레폴레모스가 맡았고, 이어 아리스토메네스가 뒤를 이었다. 기원전 200년 파니움 전투 시점에는, 왕국은 이러한 교대로 이어지는 섭정들과 궁정 고문들의 지배 아래 있었다.

파니움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 군대는 아이톨리아 출신 장군 스코파스가 전장에서 지휘하였는데, 그는 프톨레마이오스 5세 자신이 아니라 섭정 체제하에서 임명된 용병 지휘관이었다. 어린 왕은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각종 결정과 군사 전략, 그리고 왕국 전반의 취약성은 섭정들의 마비 상태, 토착 이집트인의 봉기와 같은 내부 반란, 그리고 궁정 음모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대왕 안티오코스 3세는 파니움에서 스코파스를 결정적으로 격파하고, 유대를 포함한 코일레-시리아를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로부터 영구히 빼앗았다.

역사가들은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사망이 독살에 의한 것이었을 개연성을 논한다. 이는 블라디미르 레닌과 요시프 스탈린, 그리고 남방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를 둘러싼 역사적 추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이어 그가 소련이 과거 우크라이나 교회에 대해 행사하던 통제 관계를 재도입하려는 욕망을 품으면서 그의 몰락이 시작된다. 그 통제 관계가 1989년에 철폐되었을 때, 그것은 북방의 왕이 남방의 왕을 이긴 승리의 상징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동슬라브 정교회의 요람이다. 블라디미르 대왕의 세례는 988년에 키이우에서 이루어졌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된 뒤,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라는 칭호를 자임하며, 우크라이나를 그 '정경적 영토'로 포함한 모든 러시아 땅의 정당한

계승자이자 영적 수호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하였다.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은 "한 민족, 한 신앙"이라는 표어 아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영적으로 불가분한 존재로 보아 왔는데, 이 표현은 푸틴 자신도 거듭 사용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2014년과 2022년 이래, 모스크바의 감독권을 참된 영적 모성이라기보다는 식민적·제국적 지배로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2026년 2월 현재,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정교회 구조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2019년 이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세계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로부터 독립해 온 우크라이나 정교회다. 키이우에서는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진정한 국민적 교회로 간주된다.

독자들은 유의하라: '우크라이나의 정교회'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와는 다른 교회이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젤렌스키가 그것을 공격해 오고 있다. 바티칸은 이미 진행 중인 젤렌스키의 공격에 반대하지만, 제12절에 언급된 푸틴의 반역은 라피아에서의 그의 승리 이후에 따르는 것이며, 아직 장래의 일이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역사적으로 모스크바 측 교회 기관과 연계되어 있었다. 2022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2022년 5월 완전한 자치를 선언하였으나, 우크라이나 국가 조사 당국(DESS)은 동 교회가 교회법적 및 법률적 차원에서 여전히 모스크바와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8월 러시아 정교회('침략국')와 연계된 모든 종교 단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젤렌스키가 서명하였다. 우크라이나 정교회에는 모든 연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키이우 대교구(메트로폴리스)가 법원 명령에 따른 해산에 직면하게 된다.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현재,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정교회로의 본당 이전(2022년 이후 1,300건 이상),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둘러싼 종교의 자유에 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교황청은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어떠한 강제적 해산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러시아와 푸틴은 이를 정교회의 교회법적 정통성에 대한 노골적 박해로 규정하고, 어떠한 평화 협상에서도 '러시아 정교회 소속 교회들'의 보호를 명시적 요구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러시아의 선전은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가의 공격을 일관되게 '나치즘'에 결부시키며, 이를 그들의 '탈나치화' 정당화의 일부로 삼고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교회 전체 구조를 모스크바의 권위 아래로 재종속시키기 위한 시도로, 오만하게 "성전에 들어가"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대한 완전한 영적 지배권을 주장하며, 자신이 러시아 정교 세계의 정당한 영적 수장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정확히 평행하며, 웃시야는 분향하려는 젤렌스키이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반역은 지성소에서였고, 웃시야의 반역은 성소에서였다. 남방의 왕은 'borderline'의 승리에 도취하여 나치즘의 대리 세력을 종식시키고, 이어 오직 종교의 영역에만 속한 자리를 넘어서 침범한다. 그때 갑작스러운 섭리적 낮추심이 임할 것이며, 푸틴은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기원전 204년에 죽었듯이). '약한 계승자들의 국면'이라는 권력 공백 이후, 북방의 왕은 더 큰 세력으로 돌아와 15절의 현대판 파니움 전투에서 우세를 점한다.

십칠

라피아 전투와 파니움 전투가 선에 선을 더하는 방식으로 서로 결합되는 역사 속에서, 17년이라는 기간이 세 차례 나타난다. 제국의 동서 양 왕좌가 혼인을 통해 결합되게 한 밀라노 칙령으로부터, 그 왕국이 330년에 분열되어 이혼되기까지의 17년이 있다. 이 17년의 시작과 끝은 서로 관련된 다른 두 예언적 기간의 이정표들이다. 서기 64년 네로로부터 시작되는 박해의 기간이 표지되며, 그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역사 속에서 종결되었다. 네로의 박해 시기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대표하는 타협으로의 전환은 서머나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로의 전환을 식별한다. 313년과 밀라노 칙령은 서머나 교회의 종결을 가리키며, 그 17년 기간의 끝인 330년은 다니엘 11장 24절의 360년 예언의 성취였다.

그는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들에도 평안히 들어갈 것이며, 그의 조상들도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할 것이고, 약탈물과 전리품과 재물을 그들 가운데 흠어 나눌 것이다. 또한 그는 견고한 요새들을 치기 위한 그의 계책을 미리 세우리니, 한동안 그러하리라. 다니엘 11:24.

313년, 곧 밀라노 칙령으로부터 시작되는 17년은 예언의 성취로 시작하여 다른 예언의 성취로 끝난다. 그 시작을 표시하는 첫 번째 예언의 성취는 스미르나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로의 전환을 가리키며, 그 17년의 끝을 표시하는 예언은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됨을 가리킨다. 그 17년은 어떤 특정한 17년의 선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언적 역사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교회와 셋째 교회의 분리의 알파는 360년의 시간 예언이 성취될 때 제국이 동과 서로 분열되는 것과 일치하였다. 이 두 예언은 17년의 기간을 설정하며, 만일 17이 유효한 예언적 상징이라면, 그 기간은 두세 증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정당한 예언적 기간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 증인들은 주전 457년에 시작된 또 다른 250년의 기간 안에 존재한다. 그 날짜에 다니엘 8장 14절의 2,300년 예언이 시작되었다. 주전 457년은 예언적 기점이며, 확립된 예언적 표지이다. 그로부터 250년을 미래로 연장하면 주전 207년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라피아 전투와 파니움 전투 사이의 역사에 해당한다. 라피아 전투와 파니움 전투는 분리될 수 없는데, 두 전투 모두 안티오쿠스 대왕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주전 217년의 라피아 전투에서 주전 200년의 파니움 전투까지는 17년이다. 2,300년 예언은 시작점에서 경륜의 전환을 지시하는데, 곧 셋째 칙령이 유다의 민족적 주권을 회복시켰을 때이며, 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기실 때 또 하나의 경륜의 전환이 있었다. 주전 207년은 유다에 대한 이집트 통치의 경륜에서 영화로운 땅에 대한 셀레우코스 통치의 경륜으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영화로운 땅에 대한 셀레우코스의 지배 경륜은 주전 167년에 마카베오 반란을 야기하였다.

네로의 250년 기간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역사에서 끝나며, 두 전투 사이에서 종결되는 250년은 안티오쿠스 대왕의 역사이다. 라피아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안티오쿠스 대왕을 격파하였고, 프톨레마이오스는 17년간 재위하였다. 두 250년 기간은 각각 구별되는 17년의 기간을 포함한다. 두 기간 모두 대(大)라는 칭호로 알려진 통치자의 역사 속에서 끝난다. 두 250년 기간은 확정된 예언적 이정표에서 시작하며, 또한 확정된 예언적 이정표에서 끝난다.

미합중국은 1776년 7월 4일에 성립하였고, 그로부터 250년을 더하면 2026년 7월 4일이 되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자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가 그 250년을 기념할 것이다. 2026년은, 기원전 457년으로부터의 250년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라피아와 파니움의 현대적 전투, 곧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3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사건들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종결점을 이룬다. 남방 왕의 통치, 첫 번째 일요일령의 기간, 그리고 라피아 전투에서 파니움 전투에 이르는 기간은 모두 동일한 예언적 역사와 연결된 세 개의 17년 기간을 이룬다. 세 개의 250년 기간이 모두 동일한 예언적 역사들 속에서 함께 수렴한다. 이 세 250년 기간은 도널드 트럼프와 연관된 역사와 함께, 그를 콘스탄티누스 대제 또는 안티오코스 대왕으로 표상하여, 예언적 진리의 세 선을 확립한다.

각각 250년에 걸친 세 개의 연대선은 말세에 대한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세 가지 예증을 제공한다. 네로의 연대선은 짐승의 우상의 형성에 관한 예언적 특성을 완벽하게 증언하는 17년에 걸친 타협의 역사를 지목한다.

“주께서 짐승의 우상이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형성될 것임을 내게 분명히 보여 주셨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시련이 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입장은 모순의 뒤엉킨 혼란과 같아서, 속임을 당할 자가 극히 적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주제는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3:11-17 인용].”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거짓된 안식일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입증한 모든 자들은 주 하나님 여호와와 기치 아래 서게 될 것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원을 가진 진리를 버리고 일요일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5, 15.

짐승의 우상은 교회가 그 관계를 통제하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다. 이교와 그리스도교를 결합시키고자 한 콘스탄티누스의 타협은 말세의 타협의 전형적 사례이다.

“현재 미국에서 교회의 제도와 관습이 국가의 지지를 받도록 하려는 운동들 속에서, 개신교도들은 교황주의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교황권이 구세계에서 잃어버린 패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다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더욱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주된 목적이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로마에서 기원하였고, 로마가 자기 권위의 표지라고 주장하는 관습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높이 받드는 세속적 관습에 대한 동조의 정신, 곧 교황권의 정신이 개신교 교회들 가운데 스며들어, 그들보다 앞서 교황권이 행하였던 것과 동일한 일요일 고양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다.

독자가 곧 닥쳐올 투쟁에서 사용될 세력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는 과거 여러 시대에 로마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수단들의 기록을 더듬어 보기만 하면 된다. 교황주의자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알고자 한다면, 로마가 안식일과 그 옹호자들을 대하여 드러낸 정신을 보게 하라.

세속 권력의 뒷받침을 받은 왕의 칙령들, 보편 공의회들, 그리고 교회 규례들은, 이교적 축일이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존귀한 지위를 획득하는 데 이르는 단계들이었다. 일요일 준수를 강제한 최초의 공적 조치는 콘스탄티누스가 제정한 법(주후 321년)이었다. 이 칙령은 도시 주민들에게 '존귀한 태양의 날'에 쉬도록 요구하였으나, 농촌 주민들에게는 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는 사실상 이교적 법령이었으나, 황제는 그가 명목상 그리스도교를 수용한 뒤에도 이를 시행하였다. 대쟁투, 574쪽.

일요일법으로 이끌었고 다시금 일요일법으로 이끌게 될 타협의 전개는, 313년부터 330년까지의 17년 기간으로 표상되며, 321년의 최초의 일요일법이 그 역사의 중간점으로 자리한다. 처음에는 동방과 서방의 혼인이 있었고, 끝에는 동방과 서방의 이혼이 있었다. 최초의 일요일법은 반역을 표상하는 중간 이정표인데, 이는 히브리 알파벳의 열세 번째 글자가 첫 글자가 앞에, 스물두 번째이자 마지막 글자가 뒤에 올 때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를 이루는 것과 같다. 처음의 혼인과 끝의 이혼은 알파 문자가 오메가 문자와 합치함을 분명히 한다. 네로로부터 시작된 250년의 기간은 그리스도의 표징을 지니고 있으며, 말세의 현대 진리의 한 주제에 대하여 말한다.

기원전 457년에 시작하는 250년의 기간은 라피아에서 파니움에 이르는 17년의 기간 안에 위치한 안티오쿠스 대왕이 표상하는 국정술을 강조한다. 우리는 그것을 국정술로 이해하는데, 이는 기원전 457년에 2,300년의 예언 또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2,300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예언의 내적 계열이며, 이는 교회정치와 상응한다. 네로로 시작한 250년의 기간과는 달리, 기원전 457년에 시작하는 이 기간은, 천 년의 평화라는 잘못된 가톨릭적 황금시대 개념을 주창하며 먼저 미국을, 이어 세계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지막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을 다루고 있다.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지목되는 미국의 250년은, 성경 예언에서 말하는 여섯째 왕국의 종결을 가리키며, 그 왕국은 시작된 그 자리, 곧 전쟁의 한복판에서 끝난다. 보존되는 역사 기록은 역사의 승자들이 규정한다. 세계주의적이며 용의 권능을 입은 민주당은 현 무정부 상태를 혁명으로 간주하고, 말뿐이고 행동이 없는 공화당은 이 현 국면을 내전으로 간주한다. 민주당은 성경 예언의 용을 대표하는 자들이며, 공화당은 배도한 개신교도로 표상된다. 요한이 계시록 16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다. 미국은 혁명 전쟁으로 시작하여 혁명 전쟁으로 끝난다. 공화당은 내전으로 시작하여 내전으로 끝난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혁명이라 부르는 것을 내전으로 간주한다.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남북전쟁의 외적 역사 속에서 등장한 첫 번째 공화당 대통령이 지닌 예언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링컨의 외적 역사로서의 남북전쟁은 또한 1863년에 종결된 이사야서 7장 8절 예언의 내적 역사이기도 했다. 1863년은 곧 노예해방선언이 있던 바로 그 해였다. 양 진영의 구별은 일차적이며 기초적인 예언적 원리이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었는데, 그들은 하나의 아벨을 죽이려는 두 부류의 가인이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유는 서로 달랐으나, 결국 자기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박기로 합의한 자들을 대표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한다고 공언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는 공화당원들의 경우와 같다. 바리새인들은 본래의 신적

율법을 준수한다고 공언하였으나, 그 율법을 자기들의 편견에 사로잡힌 논리로 해석하였다. 바리새인들에게 '본래의 율법'이 그러하듯, 공화당원들에게는 '헌법'이 그러하며, 그것은 그들이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지하지 않는 바로 그 헌법이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였고, 비록 바리새인들보다 작은 분파였으나, 그리스도의 시대에 유대의 종교적·정치적 판도를 장악하고 있었다.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원들보다 작은 분파로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작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권력을 유지한다. 이는 모든 이에게 동등한 정의를 수호한다고 공언하는 그들의 반대자들이, 자신들이 수호한다고 공언하는 법의 원리를 집행하는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며, 미국의 두 정당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하였던 것만큼이나 예언적 지형의 일부이다. 물론 이 예언적 맥락을 따라 다른 유사점들도 많이 있으나, 비록 서로 적대하지만 거룩함에 대항하여 연합하는 두 불경건한 권세의 예언적 관계를 볼 때에야 비로소 프톨레마이오스와 윗시야를 올바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 남방의 두 왕은 같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 시도하였으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는 용의 권세—민주당—을 대표한다. 유다의 왕인 윗시야는 영화로운 땅의 지도자이며, 배교한 개신교, 곧 거짓 선지자—공화당—이다.

용과 거짓 선지자의 관계는 갈멜 산에서 전형적으로 표상된다. 그 산에서 아합은 용을 표상하였고, 이세벨의 바알과 아스다롯의 선지자들은 엘리야를 대적하여 선 거짓 선지자들을 표상하였다. 그 짐승, 곧 이세벨은 여전히 사마리아에서 막후에 있었다. 거짓 선지자와 연합한 용의 형국은 십자가에서의 이교 로마와 유대인들의 연합으로도 표상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일요일 법령 때에 있을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합으로도 표상될 것이다. 연합된 권세의 요소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공화주의의 뿔 안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표상된다. 그 두 거룩하지 않은 정치 권세는 가인으로 표상되며, 아벨의 계열 또한 이중의 분할을 지닌다.

가인의 외적 계보에 대비되는 내적 계보인 아벨의 계보는 두 부류의 처녀로 표상된다. 땅의 짐승 곧 미국의 개신교적 뿔의 전개는, 미국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된 1798년에 사데 교회에서 시작된 일련의 종교적 정화로 표상된다. 사데는 살아 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 1798년 무렵, 교황 교회로부터 분리되었던 개신교 분파들은 이미 로마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붙여졌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은 안디옥이었다. 그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진 것은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대화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제자들이 그분의 친히 함께하심의 복을 누리던 그날들에 일어났던 일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들을 되새기며 전했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분의 고뇌, 배신과 재판과 처형, 원수들이 그분에게 가한 모욕과 고문을 그분이 참아내신 인내와 겸손, 그리고 그분을 박해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나타내신 신적인 자비를 이야기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의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사역은 그들이 기쁨으로 오래도록 말하던 주제였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으니,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었다. 이는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왕가의 이름이다. 이 이름에 관하여 야고보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다.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하며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희가 일컬음을 받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서 2:6, 7. 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16, 14." 사도행적, 157.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았고, 이에 이어 박해받는 서머나 교회가 있었으며, 그 뒤로는 버가모의 역사에서 타협의 교회가 나타났다. 교황권이 왕좌에 오르자, 분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광야의 교회로 식별되었다. 로마 교회는 두아디라에 해당하였다. 천이백육십 년의 광야기가 끝날 때, 개신교회가 일어났고, 그 시점부터 개신교의 뿔은 신적 시험과 정화의 일련의 과정으로 표상된다.

개신교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문에 못질하여 붙였을 때 시작되었고, '23'년 뒤인 1540년에 예수회가 창설되었다. 2013년에는 하박국의 판들에 대한 제95차이자 최종 발표문이 문에 못으로 박혔고, 2013년 3월 13일에는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 착좌하였다. 마르틴 루터는 바로 그 역사에서 교황 레오에 의해 파문되었다. 생각해 보라...

1798년에 사데 교회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지킨다고 주장했으나, 로마로 돌아감으로써 이미 그 이름을 지켜 내지 못하고 있었다. 1844년에 밀러주의 재림운동이 프로테스탄트의 햇불을 이어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두신 유다 지파와 혈연적으로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에 대한 견책을 표상하였다. 여로보암은 자기 나라의 옛 속박을 표상하던 종교에 근거한 모조의 예배 체계를 세웠다. 그는 그 이야기와 관련된 모든 예언적 의미를 지닌 채, 짐승의 형상을 세운 아론의 근본적 반역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의 봉헌식에서 밀러주의 재림운동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참된 예배를 계속 향하도록 인도하기를 거부한 그의 태도를 책망하였다. 여로보암은 예배의 초점을 벤엘과 단에 두기를 원했는데, 이는 1844년에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데 교회에 속한 자들을 대표하였다.

밀러파 재림주의는 로마의 종교로 되돌아가기를 선택하였고, 밀러의 메시지를 거절함으로써 거짓 선지자들로 드러난 자들의 바로 그 교리적 논증을 취하였으며, '일곱 때'의 예언적 메시지를 거절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신학적 스승으로 삼았다. 밀러파 재림주의는 불순종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길을 선택하였다. 종교개혁 이후 예언적 역사 속에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모든 시험과 정련의 때마다, 미련한 자들이 선택하는 길은 너희가 건짐을 받은 그 땅의 숭배로 되돌아가는 길이며, 말하듯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예레미야의 옛 길만은 예외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 사건으로 예표되었다. 속박의 땅에서 벗어난 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자신의 율법을 주시기로 뜻하셨다. 모세의 경우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경우에서처럼, 해방 직후에 반역이 곧바로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자처하였으나, 윌리엄 밀러의 기별이 임하였을 때에는 죽어 있었던 사데 교회를 시험하셨다. 1844년에 두 번의 정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자신들이 프로테스탄트임을 자처하였으나 죽은 것으로 판명된 사데 교회의 정화였고, 이어 같은 해에 밀러파가 정화되었으니, 이는 열 처녀의 비유가 성취된 것이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함께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의 공화주의 뿔을 구성하는 두 정치적 계급을 대표한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은, 함께 땅의 짐승의 개신교 뿔을 구성하는 두 종교적 계급이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주어진 이름을 소유한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또한 이름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자들이기도 하다.

이기는 자를 내 하나님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는 다시는 그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그 위에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12.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명명하신 것은 안디옥에서였고, 십사만 사천의 라오디게아 운동이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전환되는 그 역사는 또한 도시 안디옥이 그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으며 라피아 전투와 파니움 전투 사이의 250년 기간의 말미에서 표상되는 인물인 안티오코스 대왕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